"낡은 이념적 선입관으론 해결의 실마리 못찾아"

淨化特輯

기성세대가 보는 오늘의 大學生

○… 우리의 상황은 미묘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을 가지…○
○…고 접근할 경우 아무런 해답을 얻기…○
○…어렵다.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은 진실…○
○…을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할 뿐이…○
○…다. 그도 그럴 것이 이데올로기적 선…○
○…입관은 대개 남이 씌워준 안경이기때…○
○…문인데……○

나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75년 봄 언론을 떠나야 했다. 유신권력과 언론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타의로 언론을 떠난 많은 사람중 하나였다. 그로부터 거의 10년간 기업에서보낸 귀중한 체험은 내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혁시켜 놓았다.

신문기자와 같은 지식인 생활로는 도저히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군사분계선 양쪽에는스스로의 생존양식을 갖고 있을 때만 해도 노사분쟁이 샘기면 무조건 근로자편에 서는 입장이었다. 나는 대학시절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조합에서 일하겠다는생각을 한 일도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옆 공장이 진통을겪는 것을 보고 나는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구로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던여공들은 대부분 시골출신들로 3분의2가 중졸이고 3분의1은 중졸이었다. 그들은 적은 임금으로 자취생활을하며 조금씩 저축한 돈을 고향에 보내 생계를 도와야 할 형편이었다. 더우기 중졸여공 중 일부는 기업에서마련해 주는 학비로야간 특별학교에 나가고 교과정의 학업을 어렵게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의식교육을 시켜 싸움을 부추기고 끝내는 대부분 개인적 파멸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내가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인가 내 양심은 그럴 수 없다고 내게 결론을 내려주었다. 나는 그로부터 민중을 위한다는 이름아래 민중을 파멸로 끄는 운동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말해 오고 있다. 내가현장에서 목격한 민중운동은 민중의 구체적삶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을위해 노동운동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도력이 따르지 않는 노동운동은오히려 근로자 개개인에게 재앙만을 안겨줄뿐이다.

경제적 종속현상은 독특

나는 학생연대로 따진다면, 60년대 학생세대에 속한다.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4·19학생혁명을 겪었다. 그때느꼈던 감격과 갈등은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것이 아마 그런 학생시절의 체험 때문에 학생연대를 떠나서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아왔다. 더우기유신 말기 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절말 대단하다는생각까지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혹심해 여간한 용기와 결단없이는 유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학생운동에 대해격정하는 폭으로 더기울고 있다. 왜냐하면최근의 학생운동의 목표와 방법은 점차 우리 공동체가 허용할수있는 한계를 넘어서고있었던 것은 아니나 학생운동 전반을 주도하는 입장은 못되었다. 그러나 지금은사실 보수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지식인의 한사람이었고 그런 바탕 위에서 갖추게 된 나의가치관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 그러던 내게 결정적으로 내 자신을다시 한번 되돌아보게한 사건은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이었다. 내가 영등포의 구로공단 내에 어느 수출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바로 옆 공장이 도시산업선교회의 영향으로 노사분쟁이 샘겨 몇 달째 계속 진통을 겪고 있었다. 노사분쟁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사용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가 입게 마련이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수출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니까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수도 없다. 결국 그 회사는 노사분쟁을 극복하지 못해 문을 닫고 말았다.

노동운동은 올바른지도력이 수반되어야

나는 언론에 몸담고 있을 때만 해도 노사분쟁이 샘기면 무조건 근로자편에 서는 입장이었다. 나는 대학시절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조합에서 일하겠다는생각을 한 일도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옆 공장이 진통을겪는 것을 보고 나는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구로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던여공들은 대부분 시골출신들로 3분의2가 중졸이고 3분의1은 중졸이었다. 그들은 적은 임금으로 자취생활을하며 조금씩 저축한 돈을 고향에 보내 생계를 도와야 할 형편이었다. 더우기 중졸여공 중 일부는 기업에서마련해 주는 학비로야간 특별학교에 나가고 교과정의 학업을 어렵게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의식교육을 시켜 싸움을 부추기고 끝내는 대부분 개인적 파멸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내가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인가 내 양심은 그럴 수 없다고 내게 결론을 내려주었다. 나는 그로부터 민중을 위한다는 이름아래 민중을 파멸로 끄는 운동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말해 오고 있다. 내가현장에서 목격한 민중운동은 민중의 구체적삶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을위해 노동운동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도력이 따르지 않는 노동운동은오히려 근로자 개개인에게 재앙만을 안겨줄뿐이다.

경제적 종속현상은독특 력의 문제

나는 학생연대로 따진다면, 60년대 학생세대에 속한다.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4·19학생혁명을 겪었다. 그때느꼈던 감격과 갈등은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것이 아마 그런 학생시절의 체험 때문에 학생연대를 떠나서도 계속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아왔다. 더우기유신 말기 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절말 대단하다는생각까지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혹심해 여간한 용기와 결단없이는 유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학생운동에 대해격정하는 폭으로 더기울고 있다. 왜냐하면최근의 학생운동의 목표와 방법은 점차 우리 공동체가 허용할수있는 한계를 넘어서고있었던 것은 아니나 학생운동 전반을 주도하는 입장은 못되었다. 그러나 지금은사실 보수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현실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현실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현실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현실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 최근의 학생운동의 목표와 방법은 점차 우리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것처럼 느껴져 걱정이다. 사실 과거의 학생운동 가운데도 일부 급진적 요소가 편승한 일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학생운동 전반을 주도하는 입장은 못되었다.

도 학생운동에 대해선 계속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아왔다. 더우기유신 말기 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절말 대단하다는생각까지 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혹심해 여간한 용기와 결단없이는 유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학생운동에 대해격정하는 폭으로 더기울고 있다. 왜냐하면최근의 학생운동의 목표와 방법은 점차 우리 공동체가 허용할수있는 한계를 넘어서고있었던 것은 아니나 학생운동 전반을 주도하는 입장은 못되었다. 그러나 지금은사실 보수적 대치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주장이다. 우리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대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현실론과 신중론은 마치 통일반대론처럼 욕을 먹기 쉽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이 따르지 않는 통일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게내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아마도 절대다수가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할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을것이다. 절대로 피를 많이 흘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건일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이문열의 소설(영웅시대)를 읽어봤다. 나는 이 소설이 6·25동란 때겪은 이문열의 가족사가 주요 내용이라는데 흥미가 있었다. 이문열의 가족사는 우리 산산조각난 대표적인 이산가족이다.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통일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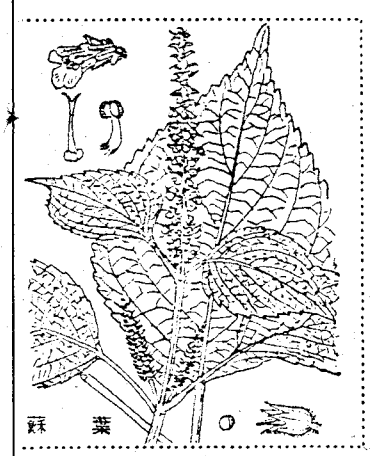
통일에 관한 논의를 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에 있어 가장 무책임한 논리는 남북한의

栽培教室

新規會員을 爲하여

〈3면으로 계속〉

엽=葉
소=蘇



1、性狀

中國 原産의 脣形科에 속하는 한해살이草本이다. 줄기는 네모가 졌으며, 가지를 많이치고 큰 것은 1m에 달한다. 잎은 자주색이고 주름이 많이 졌으며 맞붙었고 넓은 달걀꼴이며 잎가는 까실까실하다. 8월에 總狀花序로 줄기끝에 또는 葉腋에서 꽃대가 나와서 細小한 엽은 紫色꽃이 많이 피고 莖葉 및 種子가 들깨 비슷하나더 작다. 잎을 자주색 또는 紫綠色의 莖葉과 함께 수확한다.

○學 名 :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Decne
○生藥名 : 蘇葉, 蘇子
○藥用部 : 莖葉, 種子
○成 分 : 全草는 精油 0·5%를 함유하며 그 主成分은 페릴라아루데히드를 50%이상 함유하고 피넨, 리모넨등이다.
○効 用 : 全草 및 種子를 漢方에서 發汗, 鎭咳, 鎭靜, 鎭痛, 利尿, 防腐力이 있어서 간장 제조용으로 쓰인다. 주성분인 페릴라아루데히드는 雪糖의 2000배에 상당하는 감미를 가지고 있다 함.

2、品種

蘇葉에 紫蘇葉과 靑蘇葉이 있다. 紫蘇葉은 잎이 紅紫色이고 키는 작은 편이나 가지를많이 치고 씨는 대단히 작다. 잎을 蘇葉으로쓸 때에는 紫蘇葉의 莖葉이라야 하며 靑蘇葉은 잎이 엷은 紅色이고키는 큰 편이나 가지가 적으며 씨는 굵은 편이다. 靑蘇葉은 잘 쓰지 않으며 종자는 紫蘇子보다는 값이 싸나 그대로 약용에 쓰인다. 蘇葉을 재배할 때나莖葉을 수확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紫蘇葉을 심어야 되며, 蘇子를수확코자할 때에는 紫蘇葉을선택하는것이 좋으나 靑蘇葉이 씨가 굵어서 收穫量은 많은 편이다.

3、栽培法

1、栽培適地
선질이 강하여 風土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잘 되지만 따뜻한 氣候에 더 잘되며 土質은 莖葉을 수확코자 할 때에는 비교적 肥沃한 양토 또는 排水가 잘되는 양토에 심는 것이 좋으며 種子를 수확코자 할 때에는 中土質에 심는 것이 좋다.

2、繁植
種子로서 번식하는데 直播法과 育苗移植法이 있다.

㉮播種時期 : 늦은가을 또는 이른 봄에 파종하는데 늦은 가을에파종하는 것이 發芽率이 더 좋은 편이다.

㉯播種量 : 直播하여 1회 莖葉을 수확할 때에는 1·8ℓ내외가 소요되고, 2회 수확코져 할 때에는 약간 많이 뿌리게 되므로 2·7ℓ내외가 필요하다. 育苗移植法에 있어서는本圃 10a에 대하여 苗床 50㎡에 0·9ℓ내외를 뿌리게 된다.

㉰直播法 : 莖葉을 수확코져 할 때에 施行하는 방법인데 대개 1회 莖葉收穫을 할 때에는 6월중에 複合肥料 40kg를 한번 施肥하여 莖葉의 성장을 촉진시키어 주는 것이 좋으며 育苗移植한 種子收穫을 목적으로 하는 밭에 있어서는 밑거름외에 윗거름은 극히 성장이 나쁘지 않는 한 주지 않아도된다.

㉱育苗移植法 : 種子를 수확코져 할 때에는 20cm 간격으로 잔 골을 치고 씨를 줄뿌림으로뿌리고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어준다. 發芽가 잘 되므로 짙은 꼴 깍아주지 않는다.

㉲育苗移植法 : 種子를 수확코져 할 때 또는 前作 관계로 直播하지 못할 때에 시행하는방법인데 本圃 10a에 대하여 苗床 50㎡를 1/50 정도 넓이의 두둑을 지어서 苗床 全面에 흩어뿌림으로, 또는 10cm내외의 잔골을 치고 줄뿌림으로뿌린다. 發芽가 되면밴 곳은 솎아주고 키워서 苗가 10cm정도 컸을때 (서울 지방에서는 보통 6월 하순경) 에 本圃에 묘 1개 또는 2개씩을 심는데 種子만을 수확코져 할 때에는 골 사이 60cm, 포기 사이 45cm, 또는 時勢가 좋을 때에는 收穫適期가 아니고 收穫量도 많지는않으나 7월경에 莖葉의 제1회 수확을 하는데 이때에는 줄기의 2/3마디를 남기고 베며 제2회 收穫은 莖葉이 완전 成育되었을 때인 8월 하순경에 행한다. 이때에는 공석같은데 편쳐서 陽乾하는데 저녁에는 밭이슬이 맞지 않도록 유의함이 필요하며 밭이슬에 맞으면 잎이 變色이 되어 품질을 손상케한다.

種子를 수확하는 것은 9월 하순경이며 종자가 대개 結實되었을 때에 베어서 들깨단묶듯이 묶어서 건조하여 씨를 털어서 調製하는데, 收穫時期가 늦어지면 自然 落種이 많이 되는 것이므로 收穫適期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收穫量은 10a에 대하여 莖葉을 수확하는데는 1차 收穫을 한 직후에는 6월중에 複合肥料 40kg를 한번 윗거름으로 施肥하고, 2회 수확할 때에는 1회 莖葉收穫을 할 때 施肥한 윗거름외에 복합비료 20kg내외, 한번 베었을 때에는 300kg내외이고 종자로서는 900kg내외이다.

4、收穫

우리나라에서는 採油를 행하는 바 없고 단지 漢藥材로 쓰일뿐이므로 외국에서 행하는 바와 같이 成分含有量이 가장 많은 시기인 開花期에 수확하지 않고 대개 莖葉이 완전 成育이 되면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時勢가 좋을 때에는 收穫適期가 아니고 收穫量도 많지는않으나 7월경에 莖葉의 제1회 수확을 하는데 이때에는 줄기의 2/3마디를 남기고 베며 제2회 收穫은 莖葉이 완전 成育되었을 때인 8월 하순경에 행한다. 이때에는 공석같은데 편쳐서 陽乾하는데 저녁에는 밭이슬이 맞지 않도록 유의함이 필요하며 밭이슬에 맞으면 잎이 變色이 되어 품질을 손상케한다.

種子를 수확하는 것은 9월 하순경이며 종자가 대개 結實되었을 때에 베어서 들깨단묶듯이 묶어서 건조하여 씨를 털어서 調製하는데, 收穫時期가 늦어지면 自然 落種이 많이 되는 것이므로 收穫適期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收穫量은 10a에 대하여 莖葉을 수확하는데는 1차 收穫을 한 직후에는 6월중에 複合肥料 40kg를 한번 윗거름으로 施肥하고, 2회 수확할 때에는 1회 莖葉收穫을 할 때 施肥한 윗거름외에 복합비료 20kg내외, 한번 베었을 때에는 300kg내외이고 종자로서는 900kg내외이다.

5、摘要

育苗移植하는 것은 보리 뒷그루로 심을 수 있고, 直播한 것은 蘇葉을 베고 가을 채소를 심을 수 있다. 感氣藥으로 비교적 많이 쓰이며 主要成分인 페릴라아루데히드는 달게 製造에 防腐劑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초이다.

6、病害

病害로서 서울 부근에서는 6월 하순경부터 8월 중순경에 걸쳐서 잎을 喰害하는 청벌레의 발생이 있는데 다푸테렉스 등 殺虫農藥을 뿌리면 구제된다.